

# 女프로배구 광주연고팀 탄생할까...페퍼저축은행 현장실사

### 유치추진단, 시설·팬층 등 강점 부각 매튜 장 대표, 구장 점검·의견 청취

페퍼저축은행 여자 프로배구단 실사단이 27일 광주염주체육관 등 경기장 인프라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광주와 성남이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연고지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실사를 발판으로 광주시가 프로배구단 연고지로 결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페퍼저축은행 매튜 장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 염주체육관을 둘러보고 광주시와 광주시배구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유치추진단이 실사에 동행했다.

이들은 매튜 장 대표에게 배구선수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염주체육관의 강점을 소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세계수영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염주체육관을 실내스포츠 경기장으로 바꿨다. 중전에는 경기장과 관중석이 비교적 멀어 관람에 한계가 있었으나, 리모텔링을 통해 접고 펼 수 있는 가변 관람석을 설치했다. 1000여명에 달하는 관중들이 배구 코트와 가까운 곳에서 경기를 만끽할 수 있다.

유치추진단은 매튜 장대표에게 염주체육관과 가

까운 곳에 있는 빛고을체육관 등 보조경기장도 소개했다. 이어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등 훈련장과 경기장 등의 강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은 최근 여자 프로배구 7구단으로 출범했다. 광주시는 실내 스포츠 붐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프로 배구단 유치에 나섰다. 실제 김천시와 대전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과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을 지역으로 유치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최초로 2개의 프로구단을 연고지로 둔 김천은 사계절 내내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연고'의 강점을 집중 부각해왔다. 페퍼저축은행도 광주시의 이런 매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고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팬층과 확장 가능성'은 광주시가 첫 손 꼽는 강점이다. 광주와 전남·북을 통틀어 510만명에 달하는 인구는 수도권에 웃도는 팬덤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 배구동호인은 4500명에 달하며 210 여개 팀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국내 여자 프로배구 7개 구단이 수도권에 연고지를 둬으로써 팬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고 프로배구단이 없는 영남권 팬들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한다.



매튜 장(오른쪽에서 세번째)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가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 프로배구 광주유치추진단 김민철(오른쪽 두번째) 교수 등에게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실사에는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연고지에서 우수 선수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시에는 치평초, 광주체육중, 광주체고 등이 있고 목포에는 목포여상 등 여자 배구 연계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페퍼저축은

행이 광주에 연고를 둘 경우 지역 우수선수를 스카우탈 수 있다. 프로배구에서 선수육성 시스템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마쳤지만 페퍼저

축은행측과 다양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시민들의 염원인 프로배구단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발연 "탄소중립 실현위해 교통·공간·건축·녹지 정책 모두 바꿔야"

### '광주전남정책 브리프' 발간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교통·공간·건축·녹지 정책에서 탄소저감 및 흡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정책의 획기적인 수정·보완 없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목표로 삼은 2045년 또는 2050년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7일 '광주전남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교통분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광주전남정책 브리프'를 발간하며 교통·공간·건축·녹지 분야별 탄소 배출 감소 추진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최근 지자체 주도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가 제시된 것도 탄소 중립 실현의 약속이다. 광주는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2045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전남은 블루이코노미와 그린뉴딜로 실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남'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45%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나경열 지속가능도시연구실장은 "지역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탄소배출 저감 정책 추진과 함께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교통, 공간, 건축, 녹지정책의 전

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교통 분야'는 교통수요 관리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중심 대중교통연계 체계 구축, 노후차량 운행 제한 구역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간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도시 내에서 이동 동행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생활권 중심의 직주근접도시 조성과 용도지역별 탄소배출량 원단위를 적용하는 에너지 성능 기반의 용도지역지구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 정비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건축기술 적용 등 '건축

분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로 연결형 녹지공간 확충과 도시 내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녹지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시민 이용이 편리한 녹지공간 입지 정책 및 도시 내 탄소흡수를 위한 녹지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대응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식품 자가품질검사 결과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광주시 보건환경연, 법정 기한 20일보다 빠른 12일 이내 완료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할 때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커피, 두부, 김치 등 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시험·검사 시설을 미보유한 업체가 많아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200여건의 검사를 대행하고 있다.

주요 중금속, 보존료, 타르색소, 위생미생물 등

을 검사하는데 법정 처리 기한인 20일보다 훨씬 빠른 12일 이내에 시험·검사를 완료해 성적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성적서를 기다리는 업체에게 문자(SMS)로 검사결과와 적합, 부적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우편 도착 2~3일 전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금형산업 스마트화 기반 마련한다

### 산업부 공모 선정...평동산단에 설계지능화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주력산업인 금형산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지역 주력산업인 뿌리산업의 제조업분야 기술개발과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금형 제조데이터 활용 혁신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평동산단 내 금형특화단지내 설계지능화 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금형 제작 환경을 구축하고, 업무자동화 구축, 비즈니스모델 설계 등을 통한 기업솔루션을 지원해 지역 금형기업의 제작공정 및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제조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을 위한 서버인프라 구축, 데이터 규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 추출·분석하고 가공도면을 생성하는 지능화 가능구현, 기업적용을 위한 자동화 체계 구축과 설계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공정데이터 분석체계와 공동활용장비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 1분기 현재 기준 레이저 표면처리기는 81%, 프레스 2500t은 57%의 장비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순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육성 "지역 주력산업인 금형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오천투자대부**  
2020-금감원-2027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감독사과 대부업총괄팀 02-3145-8265

**고정수입·안정투자**

**돈·놀분**  
**돈·쓸분**

**문의.010-3605-5000**

대출금리 최고 연24% 이내(연체금리 연24% 이내) 부대비용 있음  
취급수수료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수거함)  
대출시 귀하의 신용에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히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